국내
마감시황

2025. 11. 1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며 하락

엔비디아 실적, FOMC 회의록 공개 앞두고 경계심 확산
외국인, 코스피 현물 1조원대 순매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929.51pt (-0.61%)	871.32pt (-0.84%)	552.66pt (-0.6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5.40 원 (+3.5 원)	3.2850% (+1.7bp)	6,636.00pt (-0.06%)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4,465 억	+53 억	-2,272 억
외국인	-10,511 억	-703 억	+3,726 억
기관	+6,256 억	+784 억	-1,28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AI 거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 시간 내일 새벽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의 의견 차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10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주요 이벤트에 앞서 위험 회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KOSPI에서 1조원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0.61%, KOSDAQ은 0.84%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3.6조원, KOSDAQ 거래대금은 7.8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은 KOSPI 현물을 순매도했으나, 선물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화학과 음식료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를 6천억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가스와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기판 수요 확대 전망에 반도체 PCB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의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을 공식 인정하면서 로봇주가 반등했습니다. 중·일 갈등 반사 수혜 기대에 화장품, 여행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AI 관련 우려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작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엔씨소프트가 하락했습니다. 조선, 방산, 바이오, 원전주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아모레퍼시픽(+3.32%), 이수페타시스(+3.15%), 레인보우로보틱스(+2.26%)가 올랐고, 엔씨소프트(-14.61%), HD현대중공업(-4.81%), SK하이닉스(-1.40%)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